

‘異名同冊’

내용의 차이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았으면서도 제목이 전혀 다르거나 비슷한 책들이 각기 다른 출판사를 통해 서점가에 나도는 일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자구책도 강구하지 않으면서 둘러대는 필자란 핑계와 “장사만 된다면야” 하는 상흔에서 읊든 이런 중복출판의 성행으로 빚어지는 혼돈을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얼마전 어느 간담회석상에서 밝혀진 부산 영광 도서(대표 김윤환)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류의 책들이 무려 30여종이 넘는다고 한다. 이 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단순한 기획의 겹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번역물의 경우 움베르토 에코·오소라즈니쉬·헨리 밀러·에릭 시걸 등 유명도에서 단연 ‘수위타자’ 격인 저자들의 작품이 대부분인데, 국내작가인 박범신·안정효 등도 눈에 띈다. 즉 인기작가들의 잘 나가는 책들이 태반이어서 모방출판의 혐의가 짙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런 식의 출판행태는 출판계의 질서와 윤리의식에 대한 공허한 자성만으로 그 피해보상이 끝나지 않는다.

“다른 책인줄 알고 사갔다가 반품하러 오는 독자의 수가 적지 않다”고 불평하는 한 서점인은, 가뜩이나 좁은 매장에 이런 책들을 일일이 분간해 진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한다. 몇달전

한 대형서점이 표절출판물과 짜깁기책을 판매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여준 예는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상징적 의미를 갖기에 충분했다.

물론 이런 책들을 출판한 출판사들은 번역서는 역자에 따라 작품의 질이 다를 수 있고, 국내저작물 역시 저자가 내용을 손질하고 다듬은 원고이기 때문에 같은 책이 아닐 뿐더러 법적·윤리적 하자도 전혀 없다고 주장할 것이 틀림없다. 일리 없지는 않다. 저작권을 위반한 해적물도 아니고 기획 모방도 아닌 상태에서 출판된 책이라면 나무랄 수는 없겠지만, 독자들에게는 중복구매와 가격이 다른 같은 책을 구입하는 착오를 안겨주고 서점측에는 업무의 번잡스러움을 가져다주는 이런 일을 간과하기에는 뒷맛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정보의 홍수라고 하는 시대상황을 고려한다면 세수한 얼굴과 안한 얼굴의 차이 정도를 고집부리는 이유로 삼는 것은 비생산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게 무지한 독자의 소견이다. —최태원 기자

재미있는 책이야기

소련에서 진행되는 혁명적인 변화의 여파는 최근 출판문화 영역까지 밀려왔다. 소련의 독서대중은 변혁과정에서 오는 갈등과 충격을 어떤 책을 읽으며 견뎌내고 있으며, 과도기에 그들이 욕구하는 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에게겐 가려져 있던 소련의 최근 면모를 살핀 「소련변혁의 논리와 갈등」(金錫煥지음, 민맥)에는 소련인의 독서문화 모습도 담겨 있어 흥미를 끈다. 다음에 인용 소개한다.

책읽는 민족하면 우리는 흔히 일본인을 연상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소련인의 독서열도 만만치 않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모두 5차례 소련을 취재하면서 필자는 소련인들의 독서열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하철역에서나 버스 속에서 혹은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속에서 소련사람들은 푸시킨이나 톨스토이의 작품을 손에 들고 독서에 열중이였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문, 잡지 등을 읽느라 열심이었다.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면서 다른 생필품들은 부족하든 책만은 넘쳐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련인들의 책과 책읽는 자세는 큰 감명을 줄 만했다.

옛말에 책읽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소련인들의 이러한 독서열을 보면 지금은 비록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을 만한 저력이 있는 민족인 것 같은 생각도

든다. 어딜 가나 줄서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소련이지만 그래도 책을 사는 데까지 줄을 선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놀랄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더욱 더 놀랄 일은 추운 날씨 속에서 몇 시간씩 서있다 마음에 드는 책을 샀다는 사실에 즐거워하며 불에다 책을 갖다대고 즐거워하는 여대생들의 모습이였다.

지난 3월 8일 모스크바시 중심가에서 약간 떨어진 지하철역 파르크 이 쿨트라에 늘어서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 책을 사기 위한 줄이였다. 파르크 이 쿨트라역 바로 옆에 위치한 서점 프로그레스로 향한 이 줄은 이 서점 2층에서 판매중인 노영사전과 영국사학가 E·H 카의 러시아혁명사 노어판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였다.

또 서점 바로 앞에서 한 청년이 최근 소련에서 가장 인기가 있으면서 일반 상점에선 구할 수 없는 영국의 작가 애거사 크리스티의 각종 추리소설 노어판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근 소련에선 추리소설분과 함께 영어 등 외국어 학습분이 일고 있어 이 분야의 관련서적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어렵게 애거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을 손에 넣은 올라(19)양은 “15루블을 주었지만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대부분 외국회사와 제휴한 출판

사들이 출간하고 있는 외국 추리소설은 최근 소련에서 상당한 히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애거사 크리스티 외에도 에드 맥베인, 렉스 스타우트, 레이먼드 챈들러 등 미국의 추리 및 범죄소설 작가들이 현대작가 막시모프, 제정러시아시대의 도스토예프스키, 러시아 혁명기의 고리키 등을 누르고 가장 인기 있는 작가의 자리에 올랐다.

또한 사회가 혼란하고 서방사회에 대한 동경심이 크게 일면서 소련의 독자들은 섹스물·과학소설·예언서 등과 같은 장르를 선호하고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라도 외국의 작가들이 쓴 것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로 각종 선전물과 딱딱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서들을 출간하던 노보스티 통신사의 출판국과 프로그레스 출판사 등 국영출판사들도 외국작가들과 계약하거나 외국출판사와의 협업을 통해 노어판을 발행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노보스티 통신사는 영국작가 마틴 크루즈의 「섹스의 즐거움」을 비롯해 미국의 톰 클랜시의 소설을 출간할 계획이고, 로널드 레이건 전미국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수록한 「내 마음을 말한다」의 출판을 위해 계약을 끝마쳤다.

소련 최대의 전문서적 출판사인 프로그레스社도 세대에 밀려 매일 카네기의 「어떻게 친구를 얻고 상대

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비롯해 몇권의 서방작가 작품을 준비 중이다.

여기다 최근 들어 전문연구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련이 자랑해 온 소비에트카야 백과사전 대신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노어판 발행을 위한 교섭을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출판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영화와 음악 등 다른 예술분야도 마찬가지다.

91년 3월 1일 에스토니아공화국 탈린에서 만났던 필라 안드(에스토니아 과학아카데미회원)는 “소련의 문화계가 새로운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구체제에 엄중과 실망을 느낀 일반인들이 소련 문화에 대한 대항현상으로서 외국 것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분리파운동을 벌이고 있는 지방공화국에서 훨씬 심각하다. 이들 공화국에선 자민족언어로 된 작품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소련 것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으려는 반소비에트문화운동 단체들도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어를 알면서도 러시아어를 사용하지 않고 러시아어로 표기된 도로명 등을 하얀 페인트로 지워버리고 그 위에 에스토니아어 등 자체 민족어로 표기하는 장면들이 종종 목격되는 가운데 소련의 문화계가 당면한 이와같은 현실은 흔들리는 소련의 또다른 일면이라 할 수 있다.

출판저널

통권 제96호 / 1991년 12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兌源 鄭蕙玉 朴南貞
디자인 — 尹貞子 南明希
사진 — 金弘鎭

업무차장 — 尹東鎭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允淳 金牧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공회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權孝彬 | 琴章泰 | 金光秀 | 金文煥 |
| 金錫滿 | 金聖坤 | 金彦鍾 | 金榮漢 |
| 金仁會 | 金鍾元 | 金治洙 | 金泰俊 |
| 金泰賢 | 金泰亨 | 朴明淳 | 朴星來 |
| 朴世熙 | 潘星完 | 邊衡尹 | 徐淵昊 |
| 宋相禧 | 申福龍 | 慎鍾寬 | 安秉永 |
| 安禎滄 | 梁文吉 | 吳光洙 | 柳一相 |
| 尹志寬 | 李康淑 | 李景薰 | 李光周 |
| 李基相 | 李斗暎 | 李萬烈 | 李炳勛 |
| 李相日 | 李勝羽 | 李元觀 | 李重漢 |
| 李姬載 | 林煥燮 | 張必和 | 張會翼 |
| 鄭丙圭 | 鄭爽鍾 | 鄭雲暎 | 鄭晉錫 |
| 鄭鎮弘 | 曹南鉉 | 曹大鉉 | 崔鍾庫 |
| 韓相讓 | 韓勝憲 | 許碩烈 | 洪廷善 |
| 黃鉉產 | | |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일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